

여자의 정조는 나라의 터전



多夕사상연구소장

박 영 호

석 가는 사람의 인성 깊이 뿌리 박혀있는 탐진치(貪瞋痴)의 삼독(三毒)을 뽑아버려야 짐승에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말리아에서 구호품을 강탈하는 폭도에서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의 치부에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목격하게 된다. 서부영화의 총쟁이들의 싸움에서 이 나라 뒷골목의 폭력배들에게서 인간의 잔악한 진에(瞋恚)를 목격하게 된다. 태평양전쟁 때의 일본군 위안부(정신대)의 증언에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난 의붓딸에 대한 계부의 성폭행에서 인간 치욕스런 치정(痴情)을 목격하게 된다.

소설가 헤르만헤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은 동물성에 가득차 있다. 동물적인 잔인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억제하기 어려운 대단한 충동에 가득차 있다. 이러한 모든 위험한 충동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헤르만

헤세 자신의 속에도 탐진치(貪瞋痴)의 짐승의 성질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류영모(柳永模)는 인간이 지닌 이 수성(獸性)이야말로 인간이 타고난 원죄(原罪)라고 하였다. 이 원죄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짐승짓에 의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지니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탐욕과 진에의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탐욕과 진에보다 치정(痴情) 곧 성범죄가 초미의 문제이다. 공보처가 여론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성범죄가 가장 걱정이라고 응답한 이가 45%로 첫째를 차지하였다. 둘째가 강절도(20.3%) 폭력(14.2%) 마약사범(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성폭력(강간)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로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하니 옛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되었다 가난하다가 먹고 살만 하니 양기가 차서 체면이고 예의고 잊어버린 것일

玄·玄·칼·럼

돈 보다 더 소중한 생명력인 정력을 아무데나 쏟아버려서야 되겠는가. 생명력인 정력을 값지게 써야 홀륭한 사람이다.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 참사람이 말하기를 “부부는 생식(生殖)을 위해서 만나고 언제나 기름(精)을 소모하지 않도록 따로 있어야 한다. 사람은 기름(精)이 얼마나 고귀한 줄을 알아야한다. 그것은 문화를 창조하고 가치를 구현하여야 할 값진 기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맛과 멋으로 사는 향락생활은 자살행위에 불과하다. 부부는 기름을 소모하지 않도록 따로 있는 것이 참사랑이다. 남편은 아내의 도구도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도구도 아니다. 사람은 물건일 수 없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랑이란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을 죽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옛날부터 절세미인을 사나이의 등골 빼먹는 년이라고 하였다. 등골을 빼먹는 것도 안되었고 등골 빼먹히는 것도 잘못이다. 자기의 등골을 보존하는 것이 사는 것이지 얼빠진데 등골까지 빼져버리면 그것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유황불 속에서 펄펄 타고있는 지옥이 아니겠는가. (다석어록”)

대법원에서 통계를 발표하기를 1991년도에 우리나라 전체로 2만1천쌍이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사유에 배우자 부정(不貞)이 44%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배우자 가운데는 아내 부정(不貞)쪽이 더 많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자쪽이 더 부정하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자를 가운데는 남자의 부정(不貞)을 알고도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깨트리지 않은 인고의 어머니들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인 성도덕의 타락이 어린 자녀들의 안식처인 가정을 훑쓸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이 깨어진 가정에서 아버지 편도 어머니 편도 못들면서 성격이 비꼬임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재혼한 가정에서 미국 크林턴 대통령이 났다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고 이 혼한 가정의 자녀는 문제아가 되기 쉽다. 류영모는 자녀들을 정자 난자로 환원시켜 찾아갈 수 있으면 이혼하라는 말을 하였다. 혼인하기 전이나 혼인한 뒤에나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정조를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은 개방하는 것이 좋지만 성(性)은 개방하면 안된다. 성개방은 인류의 자멸을 가져올 뿐이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남녀의 성(性)은 나무뿌리와 같다. 뿌리는 언제나 땅 속에 파묻어 두어야 한다. 뿌리가 드러나면 나무는 말라죽는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뿌리를 들추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식색(食色)을 너무 좋아하면 음란한 세상이 된다. 밥은 살려고 먹게되어야 하고 남녀는 낳으려고 만나게 되어야 한다. 자연의 동물들은 이 법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이다. 에덴동산의 타락도 남녀의 관계가 깨진 것이다. 요사이 성(性)의 자유니 개방이니 하지만 성을 개방하면 무엇이 자유롭다는 말인가. 그래서 인격이 더 존중된다는 것인가. 여자를 존중한다는 것과 성을 개방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다 창녀가 되어야 자유롭다는 말인가. 그럴수가 없다. 여자의 자유는 여자의 존엄에 있지 성(性)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가 미(美)의 경연대회라 하여 대중 앞에 나서서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여자의 물화(物化)요 여자의 천대지 여자의 존경이 아니다. 아름답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자본주의에 이용된다면 그것은 여자의 모독이라는 것뿐이다. 남자건 여자건 모두가 절제해서 자기의 정(精)과 신(神)을 보존해야한다. (다석어록”)

토정(土亭) 이지함이 짚었을때에 서화담(徐花潭)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책을 짚어지고 송도(松都)에 가서 낮에는 화담선생에게 글을 배우고 밤

까. 목사가 스님이 교사가 나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판이니 옛날의 소돔고모라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에 지난해에도 성폭력 사건이 5천1백건이 신고되었다고 한다. 미신고된 것은 그 10배로 짐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1년에 5만건 이상의 강간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 땅에서 딸을 기를 수 있겠는가.

류영모는 사람의 성행위가 너무나 기계적인 것을 통탄하였다. 하느님의 실수라고까지 말하였다. 지극히 사랑하는 남녀사이에서만 성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좋을 터인데 기계적인 강간이 이뤄지게 되어있는 것은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였다. 애정이 없는 성희가 목적이라면 자독행위로 만족하던지 아니면 인형이라도 만들어서 욕구를 충족시킬 일이지 왜 강간을 하느냐고 분개하였다. ‘정신대’라는 미명아래 겨레의 14.5세의 어린딸들을 피고 얼려 얹기로 데리고 가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노릇을 시켰다. 거부하면 전기체벌을 주는 가혹 학대를 서슴지 않았다. 그 소녀들은 하루에 4,50명의 군인들의 그 짓을 겪어야하였다. 일본 군인들은 화장실 용변보는 순서를 기다리듯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그 짓을 하였다. 이게 인간의 치욕스런 한 모습이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자는 땅과 같다. 땅은 굳은 것이 특징이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이고 굳은 땅에 초목이 무성하다. 여자에게 있어서 정조는 생명이다. 그런데 사막이 되어 바람에 휩쓸리면 그것이야말로 불모(不毛)의 사각지대(死角地帶)다. 땅이 사막이 되면 하늘은 비를 잊고 오곡은 말라죽는다. 노자(老子)는 아끼라고 하였다(莫若嗇) 땅은 아끼는 것이다. 성경 아가서에 보면 달친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막은 샘물이라고 한다. 수도꼭지는 언제나 막아두어야 한다. 우물은 덮어두어야 한다. 우물가는 깨끗하게 하여 우물은 닫아두어야 한다. 샘구멍이 언제나

열려있고, 우물이 언제나 열려있고, 동산이 언제나 열려있으면 그 우물은 먹을 수 없이 더러워진다. 창녀가 더럽다는 것은 열린 우물이 되어서 그렇다. 여자의 정조는 집의 터요 나라의 터다. 여성 자기들이 이 나라의 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다석어록)”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성관(性觀)에 문제가 있다. 몸을 많이 노출시키고 남녀가 뒤섞여 방종하는 것이 무슨 문명인인양 착각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만화로 소설로 영상으로 실연(實演)으로 음난경쟁을 벌리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찌 색광(色狂)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 나 없이 호기회(好機會)만 만나면 일을 저질러 쾌락을 맛보겠다는 것이다. 걸렸다면 치명적인 무서운 에이즈성병이 만연하여도 무섭지도 않는가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친오빠와 근친상간으로 남편을 죽게 만든 중국 제나라 환공의 누나나, 아들인 네로에게 도색(桃色)을 일삼다가 아들인 네로에게 살해를 입은 네로 어머니의 귀신이 덮였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다. 회생적인 열렬한 색광(色狂) 색마(色魔)들이 들끓는 세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짐승이 되었다. 짐승들은 생식(生殖)을 위하여 교미를 하지 쾌락을 위하여 교미하는 일은 전혀 없다. 사람이란 것이 짐승보다 못한 짐승이 되어서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돼지를 길러보아도 한 우리에서 자란 한 배끼리는 교미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의 2,3할이 근친에 의해 피해를 당한다니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식색(食色)을 절제할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식색(食色)을 절제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행동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돈을 써도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한다. 돈을 함부로 거저 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데

에는 여숙(旅宿)에서 묵었다. 여숙의 안주인은 나아가 짧고 미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행상(行商)을 하였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장사를 나가라고 권하였다. 그의 남편은 짐을 꾸려 가지고 행상을 나섰다. 얼마 안가서 홀연히 의심이 일었다. 그래서 밤을 타서 몰래 돌아와 몸을 숨기고 자기 아내의 동정을 엿보았다. 행상인의 아내가 과연 토정선생의 침실에 들어가서 음탕한 교태를 부린다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토정선생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바로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조용히 남녀의 분별이 있음과 인倫(人倫)의 중함을 자세히 탐이르고 꾸짖기를 누이에게 하듯하였다. 그 여자가 처음에는 비웃고 다음에는 부끄러워하고 드디어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다. 그 광경을 엿보던 그 여자의 남편이 급히 화담선생에게 아뢰기를 “집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매우 기이해서 혼자 보기야 아까우므로 감히 와서 고맙니다”라고 하였다. 화담선생이 가서 엿보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화담선생이 즉시 들어가서 토정선생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군(君)의 학업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라건데 돌아가시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토정이 화담에게 배우는 일이 끝나게 되었다.

이 토정 이지함이야말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람의 이상은 스스로 식색(食色)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율적인 인격인이 되자는 것이다. 우리는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일화를 알고 있다. 하늘을 향하여 곧곧하게 서면 사람이고 꾀임에 끌려 엎어져 넘어지면 짐승이 된다. 류영모는 이렇게 한탄하였다.

“향락을 위주하는 이 놈의 세상은 멸망을 자청한다. 세상에 영웅이라는 자들이 권력이나 금력을 잡으면 고작 호의호식하고 쳐첩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다인 줄로 생각한다. 과식(過食)하고 과색(過色)하는 악마의 나라를 세우고 멸망해 간다. 그래서 밤 낮으로 연락(宴樂)하고 미년들과 음행에

빠진다. 뱀이나 개따위를 먹고 진귀한 보약이나 심지어 아편을 먹고까지 음탕에 골몰한다. 중국에서 아편이 그렇게 유행한 것도 음란 때문이요 세상에 폐병이 그렇게 흔한 것도 음란 때문이다. 지옥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이 지옥이다(다석어록)”

내 속에 탐진치의 삼독(三毒)의 수성(獸性)이 독사처럼 뼈리를 틀고 있다. 이를 이겨야 한다. 이 수성(獸性)이 일차적인 나(自我)다. 이 짐승의 나를 이기는 것을 극기(克己)라 한다. 극기를 하자면 영성(靈性)의 나, 불성(佛性)의 나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짐승의 몸 나가 참나(眞我)가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제까지 몸의 욕망을 총족시키는 일에만 매여달리던 삶에서 풀려나야 한다. 이를 해탈이라고 한다. 예수는 참나인 진리로 자유한다고 하였다. 몸의 나는 참나인 얼마나의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심부름꾼을 부릴 생각은 못하고 심부름꾼을 주인으로 섬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 심부름꾼은 적당하게 대접하면 된다. 심부름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돌보면 된다. 사람은 참나인 영성의 나 불성의 나의 뜻을 실현하는데 맘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참 삶이다.

평양의 김일성은 몸뚱이를 위해 해괴망측한 짓을 한다고 한다. 김일성은 건강을 위하여 18세~20세의 처녀들과 함께 목욕하여 처녀들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흡수시키는 호르몬 목욕을 한다고 한다. 아마 일본의 니시건강법을 활용하는 것 같다. 또 김일성은 혈액형이 같은 18세 미만의 처녀들의 피를 뽑아 정기적으로 수혈을 한다고 한다. 나이 어린 처녀들의 피 속에는 활동성이 강한 백혈구와 혜모글로빈 알부민이 등이 많다는 것이다.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이 이것을 흉내 낼까 두렵다. 아차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작은 김일성이 되고 만다.

“먹어야 산다는 것은 육체요 안먹어야 산다는 것이 정신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바라는 것은 식색(食色)의 풍부함 뿐이다.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다.(다석어록)”